

이 진행되고 있다. 도코모가 개발하는 것은 초당 최대 2Mbit로 종래 휴대전화의 2백배의 전송능력을 가지는 광역 CDMA 규격이다.

한편, 미국 루슨트 테크놀로지, 모토롤라, 퀄컴, 캐나다의 노던 텔레콤의 미국·캐나다 4사는, 퀄컴이 개발한 현행 상용규격 「cdmaOne」를 기초로 광역 CDMA 규격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표명하였다.

이동통신-전화사 모두를 소유하는 DDI와 IDO는 1998년부터 「cdmaOne」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에릭슨, 노키아는 도코모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도코모, 미국·캐나다 방식은 기본적인 기술은 같지만 전송 등의 응용기술에 차이가 있다. 양측 모두 현재 사용하는 휴대전화 규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상대방 방식의 전면 채용은 라이선스 비용이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日本經濟新聞』, 1997. 7. 7)

일본 발신전화번호 표시서비스, 90%가 계속 이용 희망

NTT는 14일 3개 지역에서 시험 제공한 발신전화번호 표시 서비스에 관한 이용자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 도입에 반대의견도 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모니터의 약 90%가 이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을 희망하였다. NTT는 이 조사결과를 우정성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얻을 방침이다.

발신번호표시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서비스다. NTT는 올 1월부터 요코하마, 나고야, 후쿠오카의 약 3,800회선을 대상으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여 6월까지 실시 상황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

주택용 모니터(개인이용)의 약 60%는 이 서비스를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이유는 「상대방을 알 수 있어 안심」(80.5%), 「자동응답기에 메모를 남기지 않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78.6%) 등을 들고 있다. 장난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1452명중 장난전화가 전혀 안 왔다는 사람이 12.5%, 장난전화수가 줄었다가 53.2%에 달했다.

기업용 모니터의 경우 이용 이유로 「상담업무시 고객 확인」(52.8%), 주문, 예약 접수(39.6%)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모니터 이외의 가입자를 포함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화번호의 통지를 완전히 거부한 비율은 약 20%다. 서비스 도입에 대한 지지율은 「상관없다」는 의견을 포함하여 80%를 넘었다. (『日經産業新聞』, 1997. 7. 15)

NTT와 KDD, FCC 규칙제정안에 반발

NTT와 KDD는 지난 6월 4일 FCC가 발표한 외국 통신사업자가 미국시장 진입 시 필요한 심의기준을 완화한다는 개정안(NPRM)에 대한 의견서를 FCC에 제출했다.

KDD는 「현재 KDD-America의 경우 미국통신시장법 제 214조를 근거로 신청 심사를 보류하고 있지만 이것은 GATT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조기 인가를 희망한다」고 반론하고 미국이 국제접속요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벤치마크제」가 부당하며 사전 진입 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FCC는 2월의 WTO 기본통신협약에 근거하여 NPRM을 발표하였다. 그 후 각국 통신 사업자들의 의견을 내년 12월까지 접수하여 이번 NTT와 KDD의 코멘트를 포함한 의견서를 참고해서 개정안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通信文化新報』, 1997. 7. 21)